

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에 관하여

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에 관하여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발표가 있었습니다.

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과 관련된 추가 조치에 관하여

2016년 10월 17일

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(일본에서는 미발매)에 대해서는 발화 등 사안이 발생했습니다만 개선 제품에서도 동일한 발화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동 제품의 항공기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.

본 건에 대해서 미국 FAA 는 10월 15일 아침(미국시각으로 14일 저녁) 동 제품을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시(미국시각 15일 정오: 일본시각 16일 오전 1시부터 발효)를 발표했습니다.

일본도 동일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15일 일본 항공회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.

9월 9일 이후 동 제품은 기내에서 전원을 끌 것, 충전하지 말 것 그리고 화물 위탁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동 제품을 항공기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.